

(사)대한제과협회 중앙회 이사회 개최

협회 로고 변경안 및 노아카드 제휴건 토의



지난 8월 24일 서초동에 위치한 외교센터에서 (사)대한제과협회 이사회가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모 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부회장단과 전국 지회장으로 구성된 이사진이 참석했으며 전반기 협회 사업 결과와 하반기 계획을 보고하고 (주)노아커머스와 의 가맹 사업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회의에서 먼저 진행된 협회 전반기 실적 보고에서는 기능올림픽 선수단 훈련, 당원본 제작, 루이르사프르컵과 월드페이스트리팀챔피언십 대회 등 국제대회 참가에 대한 자세한 내역과 결

과가 각 이사진에게 상세한 보고서와 함께 발표됐다. 이와 함께 전국기능경기대회, 여성기술인대회, 해외기술인 초청 세미나 등 하반기 사업 계획에 대한 예산안과 일정을 보고했다.

이 날 행사에서는 경주시지부 창립 인준건, 협회 로고 변경안 등 새롭게 건의된 사항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전문 디자인 업체에 의뢰한 끝에 선보인 새로운 협회 로고 시안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이사진은 로고 변경안에 대해 준비 및 시안 작업은 회장단에 일임하고



결정은 제과업계 원로들과 이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정기총회에서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한편 (주)노아커머스와 제휴하여 발급하는 '노아카드' 가맹사업에 대해서는 (주)노아커머스와 이사진 간의 열린 논의를 펼친 끝에 각 지회지부를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이사회는 김영모 회장, 조병천 수석 부회장, 신동균·유현식·김유복·조상호(서남석 대리참석)·김흥연(송광태 대리참석) 부회장, 정재호(김제영 대리참석)·이화춘·이기남·정만규·황일하·조계중·강대윤·홍종식·윤충기·이기철·이동택·최용길·김중주·신흥중 이사, 안승호 감사 등 모두 22명이 참석하고 17명이 불참(10명 위임)한 가운데 진행됐다.

기술지도위원 전국 순회 세미나 개최 회원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성황리에 끝나

(사)대한제과협회가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7일까지 18일 동안 전국을 순회하며 개최한 기술지도위원 전국 순회 세미나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최고 기술인으로 구성된 (사)대한제과협회 기술지도위원을 강사로 초청해 14 군데의 도시를 순회하며 진행됐다. 회원들의 적극적인 호응 속에 모두 1004명의 회원들이 참석해 성황리에 마쳤다. 김영모 중앙회 회장은 "이번 세미나를 위해 수고한 기술지도위원과 협력해준 각 지회 관계자, 세미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아낌없이 후원해준 (주)키미코퍼레이션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하며 "이번 세미나는 각 지역간의 기술 격차를 해소하고, 국내 제과업계의 균형잡힌 발전을 모색한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지회 하계 대의원 단합대회 개최



광주광역시지회(지회장 이기남)는 지난 8월 19일 전라남도 곡성에 위치한 유풍농원에서 임원, 대의원 및 유관업체 등이 함께 참여한 하계 대의원 단합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기남 지회장을 비롯해 60명이 참석해 단합된 모습을 보였다. 오랜만에 지회 사무실을 벗어난 임원들과 대의원들은 오찬을 함께 하며 경기 불황을 타개할 논의를 하며 지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친선 경기를 통해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보냈다.

동작·관악지회 2004년도 기존업주 위생 보수교육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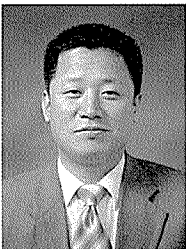
동작·관악지회(지회장 윤충기)는 지난 8월 23일 동작구 동작문화복지센터에서 기존업주 위생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보수교육은 145명의 교육생이 참석한 가운데 동작구 보건위생과 강문중 주임과 제과점 전문 컨설턴트 김봉수 강사의 강의로 이루어졌다.

한편 8월 18일에 북한산 일영에서 전·현직 서울시지회장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합대회를

갖고 화합을 모색했다. 또 8월 19일에는 동작·관악지회 임원들이 구파발 장수촌에서 이사회 겸 단합대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윤충기 지회장을 비롯해 30명이 참석해 앞으로 동작·관악지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한 의견을 나누는 한편 임원들의 친목을 도모했다.

9월 9일에는 신림동에 위치한 빵굽터제과제빵 학원에서 서울지회(강남지역) 기술지도위원 전국 순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70여 명의 참석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대한제과협회 위재상 기술지도위원의 실연으로 (주)키미코퍼레이션의 다양한 미국산 제과제빵 원료를 사용하여 웰빙을 주제로 한 기능성 제과제빵 품목으로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인원은 약 100여 명으로 참석자들의 적극적인 호응 속에 성황리에 세미나를 마쳤다.

성북지회 이사회 거쳐 박정만 지회장 선출



성북지회는 지난 8월 30일 유영철 지회장의 갑작스러운 사임으로 공석이 된 지회장 선출을 위해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고 박정만 부회장(사진)을 지회장으로 선출했다. 프랑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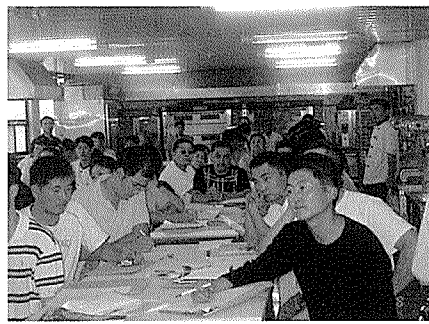
앙 바게뜨 대표인 박정만 지회장 대행은 내년 정기총회에서 정식으로 지회장 승인을 받게 된다.

한편 성북지회는 같은 날 성북구청 5층 강당에서 기존업주 위생보수교육을 실시했다. 95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생교육을 마친 참석자들은 성북구청 서찬교 구청장이 동행한 가운데 강동구 암사동 수원지를 견학 방문해 위생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주도지회 기술지도위원 전국 순회 세미나 개최

제주도지회(지회장 박광만)는 지난 9월 8일 제주 한라대학 제과제빵실습실에서 제주도지회 기술지도위원 전국 순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사)대한제과협회 중앙회 안창



현 기술지도위원장의 실연으로 후원업체인 (주)키미코퍼레이션의 다양한 미국산 제과제빵 원료를 사용하여 웰빙을 주제로 한 기능성 제과제빵 품목으로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인원은 약 100여 명으로 참석자들의 적극적인 호응 속에 성황리에 세미나를 마쳤다.

박광만 지회장은 세미나장을 가득 메운 참석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제주 지역 제과업계의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회원들을 독려하고, 기술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제주도지회는 기술분과위원회에 기술지도위, 교육, 홍보, 섭외기구를 결성했다. 앞으로 회원들의 기술 발전을 위해 기술분과위원회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기술 세미나 개최를 비롯해 각종 제품 정보 및 신기술을 도입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기술분과위원회 기구에 대한 순차적인 정립할 예정이다.

충청남도지회 기술지도위원 전국 순회 세미나 개최

충청남도지회(지회장 문홍대)는 지난 9월 14일 충청남도지회 세미나실에서 충청남도지회 기술지도위원 전국 순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충청남도 지역의 많은 제과인이 참석한 가운데 (사)대한제과협회 중앙회 오병호 기술지도위원의 실연으로 현장에서 바로 응용할 수 있는 실용제품 위주로 진행됐다.

이날 오병호 기술지도위원은 학원 원장답게 좌중을 휘어잡으며 제품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알려주어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이날 세미나가 끝난 뒤 오병호 강사는 지급된 강사료와 재료비 일체를 충청남도지회 세미나실을 위해 써달라고 기부해 화제를 모았다. 또 천안 두

주르과자점 윤석호 대표가 전기 오븐을 비롯해 세미나실에 필요한 기계를 기증해 천안 지역 기술 발전을 도모했다.

안산시지부 2004년도 기존업주 위생 보수교육 개최

안산시지부(지부장 홍순찬)는 지난 9월 2일 안산시 고잔동 탑 웨딩홀 4층에서 기존업주 위생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보수교육은 안산시 제과인은 물론 인근 시흥시, 광명시, 과천시 등에서 온 교육생이 참석한 가운데 단원구청 사회환경과 김석운 계장이 제과점을 운영하는 업주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인 식품위생 안전교육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 속에 안산공과대학 산업경영학과 송교석 교수의 '매출 신장 및 고객관리'와 문강섭 세무사의 '세무관리'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다.

홍순찬 지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과인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식품위생사책 및 1회용품 규제를 준수해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매장으로 만들자"고 말했다.

부천시지부 2004년도 기존업주 위생 보수교육 개최

부천시지부(지부장 조성영)는 지난 9월 7일 부천시청 대강당에서 부천시를 비롯해 고양시 김포시 경기도 화성시 관내 휴게음식점 영업자 430명을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부천세무서 유희필 세원과장 원미구청 권병혁 위생과장, 수원여대 임성은 강사, 부천시 청소사업소 남순우 씨의 강의로 4시간 가량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체계적인 세무관리와 식품위생에 대한 법령을 비롯해 매장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는 시간을 가졌다.

조성영 지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 침체로 어려운 때이지만 이번 보수교육을 전회위복의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제과인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5월 1일 첫발을 내딛은 제과회관건립모금을 9월 30일로 5개월간의 공식 모금을 마무리합니다. 제과인들의 한 푼 두 푼으로 시작된 회관 모금은 지난 7월 1일 역사적인 서초동 회관 시대를 맞이하면서 가속화돼 공식 일정이 끝나가는 9월 20일 현재 4억700만1천610원을 기록했습니다. 기술인 한명 한명에서 학교·학원, 제과 관련 업체까지 제과업계 전체가 업계 발전을 바라는 마음으로 발 벗고 동참한 알토란같은 성과입니다.

제과인들의 꿈이 영어 갈 새 보금자리는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세미나실·연구실·역사박물관 등이 순차적으로 조성돼 앞으로 제과기술발전과 업계 정보의 데이터화에 쓰이고, 더 나아가 제과인의 사회적 위상정립의 기틀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협회회관이 제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아직 가야할 길이 멀습니다. 새 천년 제과 새 시대를 일궈갈 서초동 회관에 제과인 여러분의 '남은' 정성을 기다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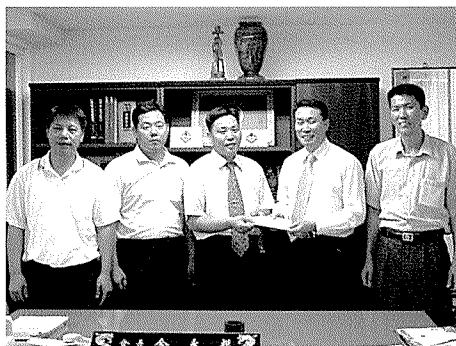
제과회관건립기금 '뜻 모아' '정성 모아'

지난 9월 한 달 동안에도 역사적인 제과회관을 건립하기 위한 제과인들의 정성이 이곳저곳에서 답지했습니다. 회원들이 한 푼 두 푼 모은 기금을 전달한 지회와 지부도 있었고, 그 동안 업계에서 받은 도움을 되돌려주고 싶었다는 제과 컨설턴트도 있었습니다.

(사)대한제과협회는 어려운 업계 사정에도 불구하고 뜻을 모아주신 회원 및 기술인, 관련 업체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탐과 정성으로 결실을 이룬 (사)대한제과협회 회관이 앞으로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익과 발전의 밑거름으로 쓰일 수 있도록 협회는 더욱 신중하게 고민하고 더욱 발 바쁘게 움직이겠습니다. 함께 지켜봐주시십시오.



강서지회 지회장 광성호



인천지회 지회장 조영규



수원시지부 지부장 양경보

신규 건립기금 후원자 명단

(주)삼양사	2,000만 원
키미코퍼레이션	300만 원
한국제과유리산업 조영철 대표	100만 원
이인호	100만 원
대구 경우회	71만 원
경인제과제빵학원 김봉수 원장	50만 원
정일식 사무총장	30만 원
까레몽과자점 정준기 대표	30만 원
앙브레과자점	30만 원
한미제과제빵학원 학원생 일동	23만1천480원
김영광	10만 원
김오균	10만 원
김자용	10만 원

지회·지부	
인천광역시지회	439만 원
쉐라메르 산곡점 홍순기(30만 원), 조영규 지회장(10만 원)	
광주광역시지회	359만 원
손병윤 부지회장(100만 원), 이기남 지회장(30만 원), 윤재선 고문(16만 원), 최준후 고문(10만 원)	
수원시지부	262만 원
박광준 이사(100만 원), 장명환 자문위원(50만 원), 조계중 경기도지회장(30만 원), 양경보 지부장(20만 원)	

천안시지부	255만 원
뚜주르과자점 윤석호(100만 원), 학화호도과자 심복순(50만 원), 문흥대 지회장(20만 원), 황규창 부지부장(10만 원), 김중기 지역장(10만 원), 이수형 베이커리 이상복(10만 원)	
강서지회	250만 원
광성호 지회장(50만 원), 주동진 부지회장(20만 원), 길경수 부지회장(20만 원), 김상윤 이사(10만 원), 김경애 이사(10만 원), 김석중 이사(10만 원), 김영현 이사(20만 원), 정만금 이사(10만 원), 이병을 이사(10만 원)	

도봉지회 김병학 지회장(50만 원), 김종용 부지회장(10만 원), 이정재 부지회장(10만 원), 마노준 부지회장(10만 원), 진봉섭 부지회장(10만 원)	23만 원	영주시지부 이재욱 지부장(100만 원)	100만 원	평택시지부 송탄 분회	50만 원
의정부시지부 한마음회(30만 원), 과우회(20만 원), 남기찬 지부장(10만 원), 변충우 고문(10만 원), 이재석 고문(10만 원), 제기모(10만 원), 다과회(10만 원)	178만7천 원	여주시지부 박중연 지부장(10만 원)	91만5천 원	당진시지부 주원환 지부장(10만 원)	40만 원
부천시지부 조성영 지부장(10만 원), 김영완 감사(10만 원), 정국섭 이사(10만 원)	131만5천 원	군산시지부 정성균 지부장(10만 원)	64만 원	아산시지부	36만 원
안양시지부 심옥섭과자점 심옥섭(20만 원), 이호식 고문(10만 원), 케익뱅크 남기석(10만 원)	118만 원	익산시지부 김현국 지부장(10만 원), 박현식 부지부장(10만 원)	60만 원	구리시지부 임복규 지부장(10만 원)	30만 원
청주시지부	100만 원	서귀포시지부 지남부 지부장(10만 원), 나폴레옹제과점 서병대(10만 원)	52만 원	속초시지부	30만 원
		제주시지부 박광만 지부장(30만 원), 김정웅 고문(20만 원)	50만 원	진해시지부	28만 원
		구미시지부	50만 원	사천시지부	24만 원
				김천시지부	15만 원
				안동시지부	10만 원

회관건립기금 후원 현황 : 총 금액 4억700만6천10원

중앙회

김영모 회장 5,000만 원, 조승환 고문 1,000만 원, 김성환 부회장 1,000만 원, 조병천 수석부회장 500만 원, 박찬희 부회장 500만 원, 김유복 부회장 300만 원, 유현식 부회장 200만 원, 신동균 부회장 200만 원, 이남호 전(前) 사무총장 110만 원, 안창현 기술지도위원장 100만 원, 최인호 기술지도위원 100만 원, 중앙회 직원 및 지회·지부 사무국장 44만 원, 유인철 기술지도위원 30만 원, 함상훈 기술지도위원 30만 원, 고희원 기술지도위원 20만 원, 최문성 기술지도위원 20만 원, 서강현 기술지도위원 20만 원, 신현수 기술지도위원 10만 원, 위재상 기술지도위원 10만 원, 최윤석 기술지도위원 10만 원

지회·지부

강남서초지회 - 618만 원

홍중훈(100만 원), 홍중식 지회장(50만 원), 권문환 부지회장(20만 원), 권상원 부지회장(20만 원), 정원기 부지회장(20만 원), 박종근(15만 원), 양중국

부지회장(10만 원), 양종규 총무(10만 원), 한길상 부지회장(10만 원), 박경선 이사(10만 원), 안영순 이사(10만 원), 오세권 이사(10만 원), 정일균 이사(10만 원), 주재용 이사(10만 원), 최형근 이사(10만 원), 박형섭 고문(10만 원), 김승도 고문(10만 원), 이삼선 고문(10만 원), 석진동(10만 원), 박용권(10만 원) 김중구 감사 (10만 원)

강동송파지회 - 534만 원

서정웅 고문 (100만 원), 도용후 지회장 (50만 원), 안승호 고문 (50만 원), 이낙근 고문 (30만 원), 양성규 부지회장 (20만 원), 맹정호 고문 (20만 원), 노영대 고문 (20만 원), 박정희 사무국장 (20만 원), 정진구 부지회장 (10만 원), 주재호 부지회장 (10만 원), 김기균 고문 (10만 원), 정빈수 이사 (10만 원) 이은택 이사 (10만 원), 최병욱 (10만 원)

서울 서부지회 - 465만 원

박용배 자문위원(100만 원), 신흥중 지회장(50만 원), 이학범 이사(20만 원), 남구현(10만 원), 강동희 친목회장(10만 원), 신현철 부지회장(10만 원), 박찬부 감사(10만 원), 박성원 부회장(10만 원), 한익

현 이사(10만 원), 김용현 이사(10만 원), 이치하 자문위원(10만 원), 김충의(10만 원), 김승준 이사(10만 원), 이당선 이사(10만 원), 이기만 자문위원(10만 원), 정종성(10만 원), 이영한(10만 원), 이은종 이사(10만 원)

대구·경북 지회 임원 및 회원 일동 - 400만 원 서울 남부지회 - 366만 원

최용길 지회장(50만 원), 전영식 부지회장(20만 원), 과우회(20만 원), 장승호 부지회장(10만 원), 강현철(10만 원), 김귀만(10만 원), 박삼남(10만 원), 백응순(10만 원), 오명수(10만 원), 이경섭(10만 원), 이근배(10만 원), 정갑희(10만 원)

동부지회 - 332만5천 원

김종주 지회장 (50만 원), 이사회 20만 원, 진승탁 이사 (10만 원), 김윤봉 부지회장 (10만 원), 이춘우 부지회장 (10만 원), 이남길 이사 (10만 원), 서영선 이사(10만 원), 정은순 이사 (10만 원), 신성묵 이사 (10만 원), 인재홍 (10만 원), 이영수 (10만 원), 과우회 일동 (10만 원), 최용자 회원 (10만 원) 대전광역시지회 - 330만 원

양천지회 - 321만 원

주재근 (150만 원), 이동택 지회장(50만 원), 조창덕 (15만 원), 문병구 (10만 원), 박경복 (10만 원), 조담용 (10만 원), 황병선 (10만 원), 김일곤 (10만 원)

울산광역시지회 - 241만 원

성동광진지회 - 228만 원

안성국 지회장 (50만 원), 이우교 (15만 원), 김흥기 부지회장 (10만 원), 박기영 부지회장 (10만 원), 이길현 부지회장 (10만 원), 박승훈 부지회장 (10만 원), 이정일 (10만 원), 김승훈 (10만 원), 이재욱 (10만 원), 김인덕 (10만 원), 남영득 (10만 원), 이웅구 (10만 원)

중부지회 - 220만 원

이기철 지회장 (50만 원), 이사회 (35만 원), 하택근 부지회장(10만 원), 유재용 부지회장(10만 원), 장창익 부지회장 (10만 원), 조성민 고문 (10만 원), 류제신 고문 (10만 원), 유경오 고문 (10만 원)

서울 노원지회 - 218만 원

홍영표 지회장(50만 원), 체육대회 상금 (15만 원), 김광식 고문(10만 원), 민부근 고문(10만 원), 김재섭 부지회장(10만 원), 장재수 부지회장(10만 원), 이기원 부지회장(10만 원), 최형일 부지회장(10만 원), 강형석 사무국장(10만 원), 이기열 감사(10만 원), 오홍근 이사(10만 원)

마포지회 - 211만5천 원

송연환 지회장 (50만 원), 김연섭 명예회장 (30만 원), 장공희 지문위원 (10만 원), 김영수 수석부지회장 (10만 원), 지성구 부지회장 (10만 원), 유광중 부지회장 (10만 원), 박진주 부지회장 (10만 원)

마산시지회 - 200만 원

서울 강북지회 - 134만 원

김흥주 지회장(50만 원)

성북지회(일부) - 107만 원

채동현 (10만 원)

안산시지부 - 100만 원

통영시지부 - 100만 원

용성북 부산광역시 전(前)지회장 - 100만 원

공주지부 - 73만 원

김길성 지부장(10만 원)

남양주시지부 - 70만 원

박성구 지부장 (10만 원)

군포·의왕시지부 - 54만 원

남원시지부 - 52만 원

한계수 지부장(10만 원)

대구·경북지회 기술분과위원 - 50만 원

순천시지부 - 50만 원

지부예산(16만 원)

논산지부 - 50만 원

평택지부 - 50만 원

박성용 지부장 (15만 원)

경산시지부 - 50만 원

광양시지부 - 40만 원

정읍시지부 - 38만 원

배두영 목포시지부장 - 20만 원

제과 단체

과우장학친목회 3,000만 원, 한국제과기능장협회 2,000만 원, 한국제과기술경영연구협회의회 500만 원, 한올회 500만 원, 거암회 500만 원, 한국관광호텔제과사협의회 300만 원, 옹호골프회 300만 원, 한국제과기계공업협회 조기호 회장 300만 원, 316과자연구회 300만 원, 전국제과인모임회 300만 원, 전국제과기술교육협의회 300만 원, 대동맥 200만 원, 한국과자회 200만 원, 여석회 200만 원, 제과경영연구회 100만 원, 인천과우회 100만 원, 레이몬드과우회 30만 원, 수원제과인축구회 25만 원

제과관련 업체

(주)크라운베이커리 운영달 대표 2,000만 원, (주)베이크플러스 1,000만 원, (주)제원인터내쇼날 1,000만 원, (주)하셀메디칼, 롯데산소마을 흥순봉 대표 1,000만 원 (주)빵굽터 김서중 대표 500만 원, 대두식품 500만 원, (주)빵굽터 사장단 300만 원, 내외설계 300만 원, (주)유니온무역 300만 원,

대흥기업 200만 원, 샌그레인코리아 200만 원, 화신문화사 200만 원, 현아종합포장 100만 원, 산하기획인쇄 100만 원, (주)비앤씨월드 100만 원, 복지부동산 100만 원, 엠마&빠나미 50만 원, 선우출력 50만 원, (주)바깥세상 신현섭 대표 30만 원

제과점

김영모과자점 본점 126만8천 원, 심옥섭과자점 100만 원, 하이밀제과점 유충열 대표 100만 원, 루반도르제과점 구상희 대표 100만 원, 씨트론제과점 이호영 대표 100만 원, 속초 빵마을사람들 이재삼 대표 50만 원, 이천 태극당 정재일 대표 50만 원, 르메이에르과자점 김연섭 대표 30만 원, 군산 빵굽는작은마을 김희택 대표 23만 원, 안산 베이커리 22만5천 원, 전주 풍년제과 우성점 20만 원, 올레뜨과자점 전일진 대표 10만 원

학교·학원

동경제과학교 이사장 300만 원, 해전대학 호텔제과제빵과 1,2학년 213만 원, 김상엽제과제빵학원 김상엽 원장 200만 원, 해전대학 조남지 교수 100만 원, 수원여대 제과제빵과 교수, 학생 100만 원, 한미제과제빵학원 100만 원, 대한제과제빵학원 오병호 원장 100만 원, 현대제과제빵학원 강언숙 원장 100만 원, 한국관광대학 제과제빵과 교수, 학생 50만 원, 해전대학 서울교육장 03, 04학년 36만 원, 경희대학교 이광석 교수 30만 원, 수원여대 박현숙 조교 10만 원

개인

익명 300만 원, 전중업 200만 원, 임형범 50만 원, 김영빈 50만 원, 슈가아뜨리에 이종열 20만 원, 필립 이리아 20만 원, 이종열 10만 원

■ 모금기간 : 2004년 5월 1일~2004년 9월 30일 ■ 문 의 : (사)대한제과협회 중앙회 TEL 02)2055-3347
 ■ 성공계좌 : (예금주: (사)대한제과협회) 우리은행 : 050-109452-13-101 / 농협 : 360-01-046422
 ※ 회관건립을 위해 성금을 내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월간 <베이커리>는 10만 원 이상의 성금에 대해서만 명단을 게재하고, 그 외에 성금 기탁자는 소속 단체명만 게재합니다. 이점 양해 바랍니다.